

<2022년 2월 9일 수요말씀>

지상세계 천국과 지옥의 삶

[시대 성경]

- ① <개발하여 만들어 놓고 쓰는 것>과
<만들어 놓지 않고 쓰는 것>은
그 환경이 ‘천국과 지옥’ 같은 차이다.
- ② 이와 같이
<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놓고 사는 것>과
<만들지 않고 사는 것>은
그 기쁨과 삶이 ‘천국과 지옥’ 같은 차이니라.
- ③ <자기 책임을 다했을 때>와 <안 했을 때>는
‘하늘과 땅’ 같은 차이이며,
- ④ <자기 것이 됐을 때>와 <안 됐을 때>의 그 기쁨도
‘천국과 지옥’ 같은 차이니라.
- 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의 차이도 그러하니라.
- ⑥ <행한 자의 삶>은 ‘살아 있는 삶’이며,
<행하지 않은 자의 삶>은 ‘죽은 삶’이니라.

[야고보서 2장 26절]

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
<행함이 없는 믿음>은 ‘죽은 것’이니라.

- 금주 주일말씀에 이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-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,
 “〈환경〉을 이상적으로 만들면 ‘천국’ 같이 되고,
 만들지 않으면 ‘지옥’ 같다.
 또한, 〈사람〉도 만들면 ‘천국의 사람’ 이 되어 살아가지만,
 만들지 않으면 ‘지옥에 속한 사람’ 이 되어,
 ‘지옥 같은 고통’ 을 받으며 살아간다.” 하셨습니다.
-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
 〈천지만물〉과 〈지구세상〉를 창조해 주시고,
 사람들이 ‘천국 같은 환경’ 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.
 〈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산 자들〉은
 ‘천국의 환경’ 을 만들어 ‘지상천국’ 을 누리고 살고,
 그 영도 ‘천국’ 으로 가서 살고 있지만,
 〈그렇지 않은 자들〉은
 지상에서도 ‘천국의 환경’ 을 만들고 살지도 못하며,
 자신 역시 ‘지옥 같은 환경’ 에서 ‘사망권의 삶’ 을 살다가
 그 영혼도 ‘사망의 영’ 이 되고 맙니다.
- 〈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〉은
 〈환경〉을 ‘이상세계 천국’ 으로 만들고,
 〈자신〉도 ‘천국의 사람’ 이 되어,
 ‘삼위를 믿고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함’ 이었습니다.
- 〈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〉은
 지상세계에서 ‘지옥의 삶’ 을 살고 있습니다.

<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시대 보낸 자를 믿고,
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>만

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
<자기 주관권>을 ‘천국’ 으로 만들어 살고,
<자기 자신>도 ‘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’ 가 되어
삼위와 주와 ‘지상천국의 삶’ 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.

- <천 년 동안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역사>에 온 모든 자들은
지금까지 삼위와 주를 믿고 따라오면서,
저마다 <환경>도 살기 편하게 이상적으로 ‘천국’ 같이 만들고,
<몸>도 <마음>도 <생각>도 닦고 만들어서,
‘천국의 사람’ 이 되어 ‘천국 문’ 으로 들어왔습니다.

- 선생님도 섭리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,
<이상세계>를 이루고 살기 위해
<환경>을 ‘천국’ 같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

- 1970년에 <150년 된 초가집>을 헐고,
<흙벽돌로 된 함석집>을 짓기 시작했습니다.

이때 선생님은 <신앙>이 변화되어 새롭게 할 때였습니다.

<선생님이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딴 길로 갈 때>는
‘환경’ 도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.

회심하고 <하나님의 뜻>을 따라 행하니,
‘옛 초가집’ 을 때려 부수고, ‘새집’ 을 짓고 살게 하셨습니다.

- <흙벽돌로 된 함석집>을 짓고 사니,
초가집에 살 때보다 ‘환경의 천국’이었습니다.

<초가집>에 살 때는 집이 ‘지옥’이었습니다.

비가 오면 물이 새고, 해충이 물고,
벼룩과 이와 진드기들이 날마다 물어뜯어도
그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.

<새로운 집>을 짓고 사니, ‘천국’이었습니다.

- 그러다가, <신앙의 차원>을 더욱 높여서
<천 년사 섭리역사>를 깨닫고 행하니,

<흙벽돌과 함석으로 된 집>도 부수고,
더 좋은 ‘기와’로 <지금 살고 있는 청기와집>을 짓게 하셨습니다.

그리고 더 좋은 ‘천 년이 가는 대리석’으로
<생가터 기념관>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.

- 지금부터 <월명동 개발역사를 담은 영상>을 보면서,
‘환경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겠습니다.

<월명동 개발역사>를 ‘1시간 정도 되는 영화’로 만들었는데,
오늘은 그중 일부만 보여주겠습니다. ‘25분짜리 영상’입니다.

원래는 정말로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,
성령께서 과거에 어떻게 행했는지 보여주고,
깨닫게 해 주라고 하셨습니다.

과거에 하나님께서 따르는 자들을 통해 행하신 광경을 못 본 사람은
오늘 보면서 깨닫고,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.

- 영상을 보겠습니다.

- 직접 보니까, 말로만 듣던 것과 다르죠?
충격적이고 은혜가 충만했죠?

하나님이 <시대 사명자>와 <따르는 자들>을 통해
‘몸부림치며 행하신 일들’이었습니다.

청춘이 다 늙도록 일했습니다.
‘눈물이 나는 애타는 모습들’이었습니다.

힘이 없어 쓰러져 있으면,
하늘의 음성이 들려와 “어서 일어나 행하자.” 하셨습니다.

- <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행한다는 것>이 얼마나 어려운지,
<지옥 같은 환경>을 <천국으로 만드는 것>이 얼마나 어려운지,
모두 깨달았을 것입니다.

사람도 <지옥 주관권에 사는 자들>을
<황금천국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해 준 것>이
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아야 됩니다.

- 이같이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‘불가능한 일들’을 행해 주셨기에
지금의 <환경>도, <자기>도 만들어진 것을 깨닫고,
절대로 <지금의 신앙>을 깨트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.
깨지면, ‘영원한 사망의 세계’로 가 버립니다.

- 이제 나머지 말씀을 들겠습니다.

- 하나님은
우리가 <신앙>을 하는 대로 대해 주시고, 축복해 주셨습니다.

<신앙의 변화>가 일어나서 <시대의 뜻>을 좇는 만큼
<환경>도, <자기 자신>도 ‘천국’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.

먼저는 <신령한 자, 영혼>이 잘됨같이,
<육신>이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.

-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,
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여,
<섭리역사>를 좇아 행하니,

하나님은 구상을 주시어
<하나님의 자연궁전>을 ‘돌’로 쌓게 하시고,
‘각종 만물들’로 ‘이상세계 천국’을 만들게 하시고,
‘보금자리’도 짓게 해 주셨습니다.

- <하나님의 자연성전>을 다 건축하고,
우리가 <새 시대의 뜻>을 좇고 따르며,
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’와 계속해서 행하니,

<각 교회의 성전들>도 축복해 주셨고,
<가정의 집들>도 축복해 주셨습니다.

섭리인 각자에게
저마다 <환경의 천국>을 축복해 주셨습니다.

- 뿐만 아니라, <육신>도 시대말씀을 지켜 행하여,

<육>도 <영>도 ‘천국의 사람’ 이 되게 하셨습니다.

- <환경>도 ‘천국’ 으로 만들고,
<자기>도 ‘천국의 사람’ 으로 만들었으니,

이제 <우리의 최고의 목적>은

- <시대 신부>가 되어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>를 모시고,
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<기쁨의 삶>입니다.

- 과거에 <환경>을 ‘천국’ 으로 만드느라,
긴긴 역사 10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 동안 몸부림치고,
각종 고통을 당하고 겪으면서 행했습니다.

또한, <자기 육신>도 신앙생활을 하면서,
갖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 가면서 ‘육신의 천국’ 을 만들었습니다.

이제는 <어떤 어려움>과 <사탄과 악한 자들의 유혹>이 있어도,
우리는 <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>로서 더 기뻐하며,
천 년 동안 삼위와 주를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.

- <자기 것이 되게 한 기쁨>이 그리도 큼니다.

<환경>도, <자기 생명>도, <각종 것들>도
‘자기 것’ 이 되게 축복해 주셨으니,
계속해서 관리하며 뺏기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.

- <신령한 기도>를 매일 해야 됩니다.

- 기도하며 <사탄과 악>을 물리치고 살아야 됩니다.

- 저마다 <자기 책임>을 하며,
‘생명들을 전도하고 관리하는 신앙의 삶’을 살아야 됩니다.
- 날마다, <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된 삶>을 살아야 됩니다.

하나님도 성령님도

자기가 행하는 만큼 함께하시며 행해 주십니다.

- <천국같이 만든 환경>과 <자기 육>과 <영>을 가지고,
하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‘천 년 혼인 잔치의 삶’을
매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. 아멘.